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12면
가야고분군 세계유산등재
현지실사 준비 시동

전주매일

2021년 2월 5일 금요일 (음 12월 24일) 제271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22 아·태 마스터스 1년 연기 최종 확정

2023년 5월 12~20일 전북도내 일원서 개최

국제마스터스대회협회, 이사회에서 확정

송 지사 "남은 시간 대회 성공 개최 위해 노력"

'2022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가 1년 연기됐다.

대회 조직위원회(위원장 송하진 도지사)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위원총회를 거쳐 국제마스터스대회협회 이사회에서 대회 1년 연기를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나된 스포츠! 즐거운 어울림!'이라는 주제로 개최되는 전북 아태 마스터스대회는 2023년 5월 12일부터 20일까지 9일간 전북 일원에서 열린다.

개최 시기가 연기됨에 따라 대회 공식명칭도 바뀐다.

당초 대회 공식명칭은 '2022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영문명 APMG 2022 JEONBUK KOREA)였으나, 대회가 2023년으로 연기되면서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영문명 APMG 2023 JEONBUK KOREA)로 변경했다.

조직위는 대회 명칭과 실제 개최 연도가 다를 경우, 일반인은 물론 참가자에게 혼선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회 명칭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송하진 위원장은 "아직도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대회 분위기를 끌어올리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며, "대회가 1년 연기되고 공식명칭도 바뀐만큼 새롭게 시작한다는 자세로 앞으로 남은 시간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3 전북 아태마스터스대회'는 국제마스터스대회협회 주최로 열리는 전 세계 생활체육 국제스포츠 이벤트로, 70개국 2만8,000여명이 참가한다. /장은성 기자

황인홍 무주군수가 4일 세계태권도연맹(이하 세태연) 조정원 총재와 만나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대학원대학) 설립'의 지를 재확인하고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날 오후 2시 세태연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는 박찬주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문현종 무주군 행정복지국장 등 양 측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무주군 - 세계태권도연맹,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협약

태권도 종주국 위상 강화 '맞손'

문화 행사 · 홍보 진행, 양 기관 보유 인 · 물적 네트워크 등 기반 홍보 지원

군, 추진위 · 자문위 구성해 정부 · 정치권에 관련 정책 제안 등 행보 나서

황인홍 무주군수가 4일 세계태권도연맹(이하 세태연) 조정원 총재와 만나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대학원대학) 설립' 의지를 재확인하고 양해각서에 서명했다.

이날 오후 2시 세태연 대회의실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는 박찬주 무주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문현종 무주군 행정복지국장 등 양 측 관계자 10여 명도 함께 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한 약속에 힘을 보탰다.

조정원 세계태권도연맹 총재는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는 전 세계 태권도인들을 아우를 수 있는 국제 사범을 양성하는 대학원·대학 개념의 전문 교육기관"이라며 "그런 사관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태권도인들에게는 영예를 안기는 일이자 국기 태권도와 태권도 종주국의 위상을 높이는 일인 만큼 세계 태권도인들, 더 나아가 세계인들의 공감대를 이뤄갈 수 있도록 연맹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무주군과 세태연은 앞으로 태권도 문화 행사 개최와 홍보를 진행하고,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물적 네트워크와 채널들을 기반으로 홍보·마케팅을 지원해 나갈 방침이다. 또 태권도 행사와 특별 기획 등의 사업 추진 시에도 협력하게 된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라며 "IOC 산하 국제기구이자 전 세계 210개국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태권도연맹의 저력이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을 앞당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이날 세태연과의 협약을 시작으로 국기원(원장 이동섭), 대한태권도협회(회장 양진방),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이상욱) 등 태권도 관련 단체들의 중지를 모아나간다는 계획으로, 앞으로 추진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와 정치권에 관련 정책을 제안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무주군은 그동안 온·오프라인을 통한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지지 100만인 국민 서명운동과 홍보활동을 벌여왔으며 "국제 태권도 사관학교" 관련 책자를 제작해 관내 기관들과 사회단체, 지역 구심체들을 비롯한 정부와 국회, 태권도 단체는 물론, 전국 대학교 태권도학과 등지에 배포하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5년 '태권도 사관학교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해 태권도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위상 유지를 위한 인적자원 확충 필요, 태권도 교육을 통한 전문인 양성에 대한 요구 부각, 태권도 리더 양성을 위한 전문 교육기관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얻은 바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2023 아 · 태 마스터스 성공 기원 설맞이 페이스북 이벤트

'좋아요' 누르고 댓글 남기면 푸짐한 경품이

오늘부터 14일까지 진행

무작위로 추첨해 제공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 조직위원회는 대회 성공 기원을 위한 설맞이 SNS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5일~14일까지 대회 공식 페이스북(www.facebook.com/APMG2023)에서 '새해 덕담 주고 福받아가소!'라는 주제로 진행된다. 대회 공식 페이스북에 접속해 '좋아요' 누르고 새해 덕담 및 대회 성공기원을 바라는 댓글을 남기면 무작위로 추첨해 경품을 제공하는 참여형 온라인 이벤트다.

아태 마스터스대회는 국제마스터스대회협회에서 주최하는 대회로 월드마스터스게임(하계/동계), 대륙별(유럽, 아메리카,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로 나뉜다.

이 대회는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Sports for all(모두를 위한 스포츠)' 철

학을 장려하려는 목적으로 1985년 창설됐다. 초기에는 은퇴한 선수와 올림픽 참가선수들을 대상으로 시작했으나, 현재는 국가, 성별, 스포츠 지위에 상관없이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출전해 비슷한 연령대의 다른 나라에서 온 참가자들과 경기를 즐길 수 있는 대회다.

특히 스포츠를 벗어나 국·내외 참가선수와 동반자들을 위한 맞춤형 전북 관광프로그램과 여행상품을 마련, 전북의 아름다운 전통과 문화·관광을 세계인들에게 선보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대된다.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는 태권도, 배드민턴, 육상 등 26개 종목에 걸쳐 진행된다. 생활체육을 사랑하는 만 3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아태 마스터스대회는 전세계 70개국 1만3,000여명의 생활체육인들이 참여한다. 여기에 선수단뿐만 아니라 함께 방문하는 동반인을 더하면 총 2만8,000여명의 내·외국인이 전라북도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강오 사무총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으로 설 연휴에 가족과 함께하지 못하는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2023 전북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토 · 일요일 신문 쉽니다